

# 친일관료 박중양과 조선통치

이형식 \_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대한제국시대
- III. 무단통치시대
- IV. 문화통치시대
- V. 맺으며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박중양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그의 친일관료로서의 의식과 행동을 밝혔다. 박중양은 일본유학, 러일전쟁 종군을 통해서 일본의 신뢰를 획득해 관료로서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1904년 귀국하여 1906년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대구 군수로 발탁되었다가 1907년부터 3년 3개월 동안 관찰사로 재직했다. 대한제국 시절 박중양은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革舊改新을 구호로 일본의 제도와 시설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재한일본인의 이해를 대변하고 의병탄압에 협력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했다. 3.1운동 때에는 경북관찰사 시절의 의병 선유 활동 경험을 살려 대구에서 자제단을 조직하여 만세운동을 진압하는 데 앞장섰다. 일본에 대한 철저한 충성심으로 관료로서 고속 승진할 수 있었고 여성문제로 두 차례 낙마한 후에도 다시 관계에 복귀할 수 있었다.

박중양은 한국병합 이후 총독부의 시정방침과 산업정책에 따라 도작 개량, 뽕나무 보급, 도로 개수 등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사업들을 강제적으로 시행해 조선인의 많은 반발을 샀지만 '민도가 낮은 조선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주제어

박중양, 협성학교, 자제단, 도지사, 아마다시 한조

.....

## I . 들어가며

시인 조지훈은 「지조론-변절자를 위하여」에서 “누가 박중양, 문명기 등 허다한 친일파를 변절자라고 욕했는가. 그 사람들은 비난을 받기 이하의 더러운 친일파로 타기(唾棄)되기는 하였지만 변절자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sup>1)</sup> 조지훈이 언급했던 박중양은 대한제국의 농상공부 주사로 관료로 시작하여 34세의 나이로 평남관찰사로 발탁된 이후 경북관찰사, 충남도장관, 황해도지사, 충북도지사를 역임하였다. 퇴관 후에는 중추원 고문, 부의장을 거쳐 귀족원의원에 칙선되었다. 식민지시기 조선인이 조선총독부관료로서 오를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고위직은 도지사였는데 박중양은 조선인 도지사(42명)의 평균 재임기간(약 4년)을 훨씬 뛰어넘는 8년 6개월(관찰사는 3년 4개월)을 복무하였다.<sup>2)</sup> 3.1운동 때에는 자제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 진압에 앞장서서 『친일파99인』에 실릴 만큼 친일관료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박중양은 어떤 인물이고 친일관료로서 어떤 일을 했을까.

조선인 도지사 연구는 주로 개개인의 친일 행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대상도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sup>3)</sup> 이후 조선총독부 조선인 관료에 대

---

1) 조지훈, 「지조론-변절자를 위하여」, 『조지훈 전집 5』, 나남출판, 1996, p.97.

2) 한궁희,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도지사 임용정책과 양상」, 『역사문제연구』 13권 2호, 2009, p.115.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찰사, 도지사에 대한 임용, 충원양식, 대한제국 관료와의 연속성이 분석되었다.<sup>4)</sup>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고 1,005명에 대한 친일 행적이 조사되면서 그 부산물로서 조선인 도지사의 이력과 활동 등이 밝혀지기 시작해 연구를 촉발시켰다. 도지사의 기능과 역할, 조선인 도지사 임용정책과 양상이 밝혀졌고 2018년에는 조선인 도지사를 테마로 한 박사학위논문이 발간되기에 이르렀다.<sup>5)</sup>

이렇듯 조선인 도지사 연구가 축적되어 가고 있지만 선행연구는 여전히 친일행적이거나 인사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친일관료는 규탄의 대상이었지 본격적인 연구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 결과 조선인 도지사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미흡할 뿐 아니라 지방장관이 시행한 구체적인 정책을 분석하여 조선통치에서의 역할을 구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sup>6)</sup>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친일관료 박중양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그의 인생 궤적을 살피면서 그의 행동과 의식을 내재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박중양은 러일전쟁 이후 보호국체제 하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갑신정변 및 갑오개혁과 관련해 망명한 ‘國事犯’과 차별된다. 조지훈이

3)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친일파99인 1』, 돌베개, 1993.

4) 淺井良純, 「日帝侵略初期における朝鮮人官吏の形成について－大韓帝国官吏出身者を中心に」, 『朝鮮學報』 第155號, 1995; 박은경, 『일제하 조선인관료 연구』, 학민사, 1999.

5) 동선희, 『조선총독부 통치구조 하에서의 道 및 道知事의 기능과 역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년 학술연구용역보고서; 한궁희(2009); 김원도, 『일제강점기 조선인 도지사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동 위원회는 2009년에 조사결과를 4부 25권 총 2만 1,000여 쪽에 달하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도지사 역임자 42명에 관한 이력과 경력이 수록되어 있다.

6) 예외적으로 도지사를 역임한 후에 조선인 최초로 학무국장에 임명된 이진호의 궤적을 다룬 연구가 있다. 稻葉繼雄, 「李軫鎬研究－朝鮮總督府初の朝鮮人學務局長の軌跡」, 『國際教育文化研究』 第6號, 2006.

지적했듯이 그는 변절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본 세력을 이용하여 입신 출세를 거듭했던 인물이다. 동 시기의 관찰사, 도지사들과 박중양을 비교하여 박중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밝혀내겠다. 마지막으로 군수, 관찰사, 도지사 시절 박중양이 구상했거나 시행했던 정책을 분석하여 조선통치에서 그가 행한 역할을 평가하겠다.

자료로서는 박중양이 남긴 회고록(『述懷』)이나 신문, 잡지에 투고한 글뿐만 아니라 조선총독을 비롯한 일본인 유력자에게 보낸 다수의 서한 등을 사용해서 친일관료 박중양의 의식과 행동을 추적하면서 박중양의 ‘선택적 기억(selective memory)’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Ⅱ . 대한제국시대

### 1. 일본유학시절

박중양은 1874년 경기도 양주에서 아버지 박정호(朴鼎鎬)와 어머니 전주이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황현의 『매천야록』에 따르면 박중양은 양주의 아전이었다고 한다.<sup>7)</sup> 그의 나이 21살 때 청일전쟁이 발발하였고 동소문을 점령한 일본군과 처음으로 조우하였다. 청나라 군대의 패배와 일본군의 연전전승이 그로 하여금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 청일전쟁 후 박중양은 일본인 이발소에서 상투를 자르고 일본인과 술을 마시면서 필담하는 등 일본인과 친밀하게 교류하였다. 일본인들의 권유와 “일본인과 교제 이래 국가 관념이 맹동하고 정치적 방면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

7) 황현, 『梅泉野錄 卷之五』, 국사편찬위원회, 1955, p.401. 『대한매일신보』(1907년 12월 6일자) 역시 박중양을 양주군의 퇴리라고 보도하고 있어 아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이 발흥하여 일본유학을 결심했다. 당시 그의 나이 23세였고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것이다. 박중양은 한국시대의 상민의 자제는 有爲之材라 하더라도 관리에 등용될 수 없고 정치에도 참여하지 못했지만 일제시대에 비로소 사민평등이 실현되고 인재를 등용하였다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평가했다.<sup>8)</sup> 신분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박중양에게서 일본유학은 신분제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일종의 돌파구였을 것이다.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답을 방매하고 1896년 10월 게이오기쥬쿠(慶應義塾)에 입학하기 위해 일본유학을 떠났다.<sup>9)</sup> 동경에서 게이오기쥬쿠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동양협회 간부 미에다 고타로(三枝光太郎)를 만나 그로부터 목사이며 靑山英和學院長인 혼다 요이치(本多庸一)를 소개받았다. 박중양은 혼다의 식객으로 있다가 1897년 그가 경영하고 있던 아오야마학원(靑山學院) 중학부에 진학하였다. 동경에 있는 동안 박영효, 이준용, 조희연, 장박, 유길준, 안경수, 權滄鎮 등의 망명객을 방문하였지만 포부도 없고 '無爲之徒'라 생각하여 교제를 단념했다고 한다. 이후 靑山英和學院의 기숙사로 이사하였는데 학비는 면제받고 식비 등의 비용은 학교에서 주선한 인쇄소에서 근무하면서 충당하였다.

1900년 靑山英和學院을 졸업하고 1903년 東京簿記學校에 입학하여 은행 업무를 배웠다. 1900년부터는 관비유학생이 되어 경찰제도연구생으로 동경 경시청을 통근하면서 경찰제도와 감옥제도를 연구, 실습했다. 당시의 경시총감은 오우라 가네타케(大浦兼武)였고 제2부장은 마쓰이 시게루(松井茂), 제3부장은 아마네 마사쓰구(山根正次)였다. 박중양은 오우라

8) 박중양, 『述懷』, 자기출판, 발행년불명, p.163.

9) 박중양(발행년불명), pp.90-91; (61) [朝鮮人 動靜報告 件],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0』, 국사편찬위원회, 1994. 국비유학생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하는 논자도 있으나 전답을 팔아 학비를 마련했다는 기술이 있어 일본에 가서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된 것 같다.

의 주선으로 일본의 지방경찰과 지방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지방을 순회했다. 지방에서는 그를 국사로 환영하였고, 순회 경비는 휘호를 팔아 충당했다고 한다. 지방 순회 기간 현지사, 서기관, 경찰부장, 참서관 등 내무성 관료들과 친분을 맺게 되었다. 통감부 시절부터 내무성 관료들이 한국, 조선지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내무성 인맥은 관료로 출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병합 이후 조선의 도장관에 취임한 도야마현(富山縣) 지사 히가키 나오스케(檜垣直右), 동현 서기관 스즈키 다카시(鈴木隆) 등이 그들이다.

1904년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자 와카야마현(和歌山縣)을 만유하고 있던 박중양은 동경으로 돌아와 체신대신이 된 오우라와 협의하여 종군하였다. 구로키 다메모토(黒木為楨) 대장이 지휘하는 제1군의 고등통역관 대우로서 출정부대와 동반하여 히로시마현(廣島縣) 우지나항(宇品港)을 출발하여 인천, 진남포, 용암포, 안동현 등지에 종군하였다. 아울러 철산반도 연안에 러시아 병사가 출몰하여 한국인의 여론이 크게 동요하자 한국인에게 전쟁 목적과 한일동맹을 설파하는 연설을 수시로 하는 등 종군 통역으로 서보장 6등을 받았다. 종군 통역으로 훈포상을 받은 22명 가운데 동경외국어학교 강사인 유심근과 함께 가장 높은 포상이었다.<sup>10)</sup> 참고로 박중양은 이 때 제1군으로 참전한 데라우치 육군대신의 아들인 히사이치(寺內壽一), 나중에 교육총감이 된 마사키 진자부로(眞崎甚三郎)와 친분을 쌓게 된다.

이처럼 박중양은 일본유학, 러일전쟁 종군을 통해서 이후 관료로서 출세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획득했다.

10) 김윤희, 「러일전쟁기 일본군 협력 한인 연구-일본정부의 훈포상자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35호, 2009, pp.23~24.

## 2. 군수 시절

1904년 11월에 농상공부 주사가 되어 올바른 인재를 등용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외면당하자 대구 파견을 자청했다. 대구는 낯선 곳이었지만 한성 정계의 동향을 관망하기에 편리했고 경부선이 통과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동경으로 가기도 용이했기 때문이었다.<sup>11)</sup> 또한 박중양은 경부선으로 대구를 통과하는 일본인 유력인사의 마중과 환송을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대구는 경부선이 개통되자 일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북관찰사와 일본인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빈번했다. 일본인들은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지가가 상승하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가옥과 전답을 매수하는 데 광분했고,<sup>12)</sup> 이를 저지하는 관찰사를 일본군의 위세를 이용하여 배척하는 운동을 전개했다.<sup>13)</sup> 특히 1905년 2월 경북관찰사로 부임한 이용익은 일본인들에게 토지, 가옥을 매도하는 행위와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 율령을 어기는 자는 한국인, 일본인을 막론하고 투옥하자<sup>14)</sup>, 일본인들은 이용익 배격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하였고 이 운동에 박중양은 적극 협력하였다. 박중양은 『술회』에서 자신이 관찰사와 일본인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활동했다고 기술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본인의 배격운동으로 이용익이 대구를 떠나고 후임에 친일 성향의 이근호가 부임하자 일본인 상인들은 행정적 견제 없이 토지를 축재할 수 있게 되었다. 박중양은 일본인들의 토지 집적을 돕는 데 일조했던 것이다.

11) 박중양(발행년불명), p.131; 김도형, 「박중양-3.1운동 진압 직접 지휘한 대표적 친일파」,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친일파99인 1』, 돌베개, 1993, p.240.

12)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70년사 상권』, 대구상공회의소, 1977, p.212.

13) 이에 대해서는 이형식, 「조선의 전기왕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와 조선사회」, 『동양사학연구』 145, 2018를 참조할 것.

14) 대구상공회의소(1977), p.212; 김일수, 「한일병합 이전 대구의 일본인거류민단과 식민도시화」, 『한국학논집』 59호, 2015, p.268.

1906년 5월 군부 기사에 임명되었고 전첩기념대관병식에 참석하는 의친왕을 수행하여 통역 수행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총리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육군대신,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해군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한국통감이 개최하는 환영회에 출석했고 군부시설 및 제조공장을 시찰하였다. 귀국해서 1906년 7월에 궁내부 주전원 경위국 경무관에 임명되었다가 같은 달 이토 통감의 內托으로 대구군 군수 겸 경상북도 관찰사 서리에 임명되었다.<sup>15)</sup> 관찰사 서리 시절에는 혁구개신(革舊改新)의 구호 아래 주사·서기청의 폐지, 觀察道 郡衙 사무실의 신설, 대구성벽의 철거, 대구시가도로의 개수, 郡道 개수, 대구시내 하수구 신설, 변소 개수·신설, 우물 개수, 시장 개선, 걸인 수용소 설치, 노비해방, 무명잡세의 폐지, 재원 정리, 용원(冗員) 도태, 관리들의 장발 단행 등을 잇달아 시행하였다.<sup>16)</sup> 한국의 구제도를 폐지하고 일본의 제도와 시설을 한국에 도입했던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 한국통감이 한국 정부에 부탁하기를 “한국에서 가장 좋은 관리는 오직 박중양이다”<sup>17)</sup>라고 할 정도로 이토가 내세운 ‘문화정치’를 충실히 실행했던 것이다.<sup>18)</sup> 박중양은 이토의 비호 아래 내부(內部)에 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읍성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도로를 건설했다. 박중양이 성벽을 허물고 나온 성돌을 1개에 1냥씩 받고 일본인에게 팔았다고 전해졌는데<sup>19)</sup>, 아울러 대구 성벽 철거 후 일본인들은 헐값에 사들인 도원동 일대 저습지를 헐어낸 성토와 석재로 매립해 큰돈을 벌었다.<sup>20)</sup>

15) 박중양(발행년불명), p.145·149.

16) 박중양(발행년불명), pp.150~151.

17) 황현(1955), p.401.

18) 이토 히로부미의 ‘문화정치’에 대해서는, 森山茂徳, 『近代日韓關係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87, 제2부 제1장 「日本の朝鮮保護政治」를 참조할 것.

19) 『皇城新聞』 1906년 11월 17일자.

20) 김일수(2015), 이형식(2018).



### 3. 평남관찰사 시절

1907년 봄부터 한국에서 반정부,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자 박제순 참정은 사임을 이토 통감에게 전했다. 이에 대해 이토 통감은 친일단체 일진회를 학부대신 이완용과 연합시켜, 이완용을 참정으로 하는 내각을 조직시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sup>21)</sup> ‘이완용·송병준(일진회) 연립내각’이 1907년 5월 25일 성립했다. 이 이완용 내각 하에서 이토 한국통감의 추천으로 박중양은 1907년 6월 34세의 나이로 평남관찰사로 영전했다. 같은 날 일진회 출신의 양재익과 김규창은 각각 양주군수에서 충남 관찰사로, 파주군수에서 전남 관찰사로 발탁되었다. 초임 군수를 칙임관인 관찰사로 발탁한 것은 전례가 없는 아주 이례적인 인사였다. 이토는 평남 관찰사로 부임하는 박중양에게 미국인과 원만히 교제하고 국제문제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sup>22)</sup>

평남관찰사 시절 평양군용지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한국주차군은 1904년 강제로 체결된 한일의정서를 근거로 병영 부지로 용산, 의주, 평양에 약 1000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를 수용하고 그 배상금을 한국 내부에 교부할 것을 결정했다. 한국주차군사령부는 1905년 8월 군용지 수용과 수용지 안에 있는 가옥, 묘지, 식물 등을 이전하고, 보상금은 이후 내부에서 수령하고 만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철거하겠다고 고지했다. 일본군이 토지 수용 대가로 지불하는 보상금이 20만원이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용대상이 되어 생존권이 박탈된 현지인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었다.<sup>23)</sup> 평양에서는 인민 대표를 파견하여 정부에

21) 伊藤之雄, 『伊藤博文をめぐる日韓關係：韓國統治の夢と挫折, 1905~1921』, ミネルヴァ書房, 2011, pp.45~47.

22) 박중양(발행년불명), p.172.

23) 송지연, 「러일전쟁이후 일제의 軍用地 收用과 한국민의 저항: 서울(용산), 평양, 의주를 중심으로」, 『梨大史苑』 30호, 1997를 참조할 것.

지가보상 등 문제해결을 진정했다. 내부에서는 한성관윤 박의병을 평양에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평천리 일대 토지 약 100만 평을 군용지로 수용했다. 평양의 인민들은 험값으로 토지를 빼앗기고 일본인 상인 수중에 넘겨줄 바에야 차라리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보상금 수수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1908년 1월 일본정부에서는 박중양 관찰사에게 위탁하여 토지대금을 지불케 하였다.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1평에 7전, 시가는 20~30전)을 제시하자 지주들은 이에 불복하고 수용지 토지 환수 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박중양은 지주 대표를 체포하고 강제 진압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다.<sup>24)</sup> 이후 토지수용대금은 피해 농작물의 손해배상으로 지불하고 토지는 군용지로 수용하되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반환한다는 약속을 하고 지주들은 전과 같이 토지를 경작했다.<sup>25)</sup> 실제로 1908년 4월 주차군은 1,000여만 평 중 철도용지와 겹치는 부분과 일부 토지를 환부하여 총 578만 평을 환부했다.<sup>26)</sup> 하지만 환부된 평양의 토지는 지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일본인 단체인 민단이 관리하여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였다.<sup>27)</sup> 박중양이 약속을 어기고 일본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 박중양은 군용지 이외에도 둔전토를 일본인에게 매도하여 18,000원을 奉植하고 민유지인 일영지를 일본인에게 1,600원에 방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로 인해 언론으로부터 일본인의 ‘심복노예’로 ‘賣國肥己’하고 국민을 박해하였다고 비판받았다.<sup>28)</sup> 한편 박중양은 평안남도 관찰사 재임 중 관내를 순회하며 의병토벌 지원 및 회유 공작을 벌였으며, 의병 주도자의 재산 몰수를 계획했다.<sup>29)</sup>

24) 「軍用地價 出給」,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16일자.

25) 「陳情單 二十餘次」, 『조선일보』 1925년 1월 3일자.

26) 송지연(1997), p.96.

27) 『매일신보』 1912년 2월 27일자.

28) 「平壤軍用地調査委員朴義秉과 觀察朴重陽은」,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20일자.

2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V-7』, 2009.

#### 4. 경북관찰사 시절

이토는 헤이그밀사사건을 구실로 1907년 7월 고종을 퇴위시키고 제 3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시켜 외교권에 이어 행정권마저 사실상 장악했다. 제3차 한일협약에 따라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토의 대한제국 관료 임명에 대한 영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이어 1908년 5월 송병준이 내부대신에 취임하여 <표 1>과 같이 같은 해 6월 11일 지방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전북(이두황)·평북(류혁노)·함북(윤갑병)관찰사를 유임시키고 10도 관찰사를 교체했다. 김사묵, 박중양, 황철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새롭게 일진회 간부나 일본에 망명했던 권봉주, 최정덕, 신응희, 조희문, 이규완, 이진호, 이범래를 발탁했다. 아시아 요시스미(淺井良純)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종래의 지배층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중인, 서자, 몰락양반 등 조선지배층 사회의 주변적 인물로 근대 학교에 들어가 일본 세력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지위를 상승시켰던 자들이었다.<sup>30)</sup> 참고로 박중양은 송병준에 대해서 ‘조폭한 성격자이고 파괴적인 인물<sup>31)</sup>’이라고 평하고 있다.

〈표 1〉 송병준 내부대신 시기의 관찰사

	성명	생년	출신지	학력	주요경력	전직
경기도	金思默	1856	충주	무과급제		경남관찰사
충북	權鳳洙	1870		법관양성소		內藏院副卿
충남	崔廷德	1865		한문수학	독립협회, 일본망명, 일진회	전 부찬의
전북	李斗璜	1858	한성	한문수학	일본망명	
전남	申應熙	1859	한성	陸軍戶山學校		전 부찬의
경북	朴重陽	1874	경북	東京靑山學院		평남관찰사

pp.222~225; 김원도(2018), p.45.

30) 淺井良純(1995), p.77.

31) 박중양(발행년불명), p.160.

경남	黃鐵	1864	한성		일본망명	강원관찰사
황해도	趙義聞	1858	경성	무과급제	일본망명	전 감사관
강원도	李圭完	1862	전주	陸軍戶山學校	일본망명	전 부찬의
평남	李軫鎬	1867	경성	한문수학	일본망명	전 부찬의
평북	柳赫魯	1853	아산	한문수학	일본망명	영림창 사무관
함남	李範來	1868		한문수학	일본망명	전 부찬의
함북	尹甲柄	1862	의주		러일전쟁 종군 일진회	전 부경

\*안용식 편, 『韓末地方官錄』, 연세대학교 지역사회개발연구소, 1992; 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을 통해서 작성(2019.10.15.을 검색). 굵은 글씨는 유입된 관찰사.

박중양은 경북관찰사 재직 중에 대구의 협성학교문제로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협성학교는 경상도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 참판 서상하를 비롯한 대구의 유지들이 樂育齋와 養士齋 재산을 합하여 설립한 중학교이다. 1906년 음력 1월에 중등학교 설립을 관찰사 이근호에게 승인 받고 이후 학부에 보고하여 고종으로부터 啓字와 내탕금 천원을 하사받았다고 한다.<sup>32)</sup> 이후 서상하는 교장에 취임해 사재를 털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다.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교육구국운동이 일어나자 통감부는 1908년 8월 사립학교령을 반포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강화했다. 이러한 통감부의 방침에 따라 박중양은 관찰사로 부임하고 나서 협성학교의 재산을 빼앗고 학교를 폐지하여 제2공립보통학교로 전환시키려고 했다. 교원과 학생들이 일제히 반대하자 박중양은 순사를 파견하여 장부를 몰수하고 자신과 친한 인사를 교장 이하 임원으로 임명하려고 하여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sup>33)</sup> 이후 경상북도 사립은 대표를 선정하여 학부에 청원했고 경상도의 교육계몽운동단체인 교남교육회(嶺南教育會)가 평의회를 개최하여 학부에 보고했지만 학부는 박중양에게 조사를 명령할 뿐이었다.

32) 『皇城新聞』 1908년 7월 19일자, 12월 12일자.

33) 『皇城新聞』 1908년 12월 12일자;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29일자; 김도형, 「한말 경북지역의 近代教育과 儒敎」, 『계명사학』 10호, 1999, p.77.

한편 박중양은 의병봉기의 원인, 주도자(허위, 이강년, 민공호, 장운덕, 김도곡, 신돌석 등)의 신상, 의병의 활동 실태와 토벌 상황 등을 조사하여 마쓰이 시게루(松井茂) 경무국장에게 보고하였다.<sup>34)</sup> 당시 지방관이 군대와 경찰의 무력에 의존해 관청소재지와 같은 안전지대를 한 발자국도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박중양은 의병이 활동하는 도내 각지의 위험지대에 들어가 인민을 집합시켜 대세를 역설하고 이해를 설파하는 宣諭를 했다.<sup>35)</sup> 강원도관찰사 이규완도 의병들에게 귀순을 권고하고 보호 정치에 안도하여 생업에 정진하라고 諭示하여 ‘흉악한 매국노’라 지탄받고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sup>36)</sup>

이처럼 박중양은 관찰사 3년 3개월(1907.6~19010.9) 동안 군용지문제, 둔전토·민유지의 일본인 방매, 협성학교문제 등으로 한국인의 원성을 샀으며 의병탄압에 앞장섬으로써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했다.

### Ⅲ 무단통치시대

#### 1. 충남도장관시대

박중양은 한국병합 당시 “폭풍과 홍수를 방어할 지력이 없고 대세를 항거할 실력이 없다” 관찰사를 계속할 것인가 퇴관할 것인가 번민하였다 고 『述懷』에서 밝히고 있다.<sup>37)</sup> 그러나 가쓰라 다로(桂太郎) 수상에게 부

3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3: 의병항쟁사자료집』, 1971, pp.571~584.

35) 1927년 1월 27일자 사이토 마코토 앞 박중양 서한(「齋藤實關係文書」 1850-24 국 회도서관헌정자료실 소장).

36) 비판신문사, 『李圭完翁百年史』, 비판신문사, 1956, p.80.

37) 박중양(발행년불명), p.161.

현재나 어떠한 방침을 시행하더라도 한국인은 반항할 실력이 없으니 조속히 한국을 병합할 것을 건의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는 사실과 다르다.<sup>38)</sup> 박중양은 한국병합 후에도 경북도장관으로 재임하다가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자 충남도장관으로 이동했다. 13도 도관찰사가 모두 도장관에 임명된 것은 아니었다. <표 2>와 같이 도장관 중에 조선인은 6명만이 임명되었는데, 의병탄압과 회유공작에 앞장섰던 이진호, 조희문, 이규완, 이두황, 신응희, 박중양만이 살아남았다. 이들 도장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들은 모두 일본에 유학했거나 망명했던 자들로 박중양을 제외하고 5명은 무관출신자였다.<sup>39)</sup>

<표 2> 한국병합 당시의 조선인 도장관

	성명	재임기간	이후 주요 경력	도지사 재직기간
경북도장관	李軫鎬	1910~1917	전북장관(1917~1921), 학무국장(1925~1928), 중추원 참의(1931~1939), 중추원 부의장, 귀족원의원	10년 10개월
황해도장관	趙義開	1910~1918	중추원 찬의(1919), 중추원 참의(1923~1939)	8년
강원도장관	李圭完	1910~1918	함남지사(1919~1924)	14년 2개월
전북도장관	李斗璜	1910~1916	사망	5년 5개월
충남도장관	朴重陽	1910~1915	중추원 참의, 황해도지사(1921~1923), 충북지사(1923~1925), 중추원 고문, 귀족원의원	8년 6개월
함북도장관	申應熙	1910~1918	황해도장관(1919~1920), 중추원 참의(1925~1927)	10년 5개월

秦郁彦, 『戦前期日本官制の制度・組織・人事』, 東京大学出版会, 1981; 『朝鮮總督府官報』에서 작성.

38) 「民族抹殺을企圖」, 『경향신문』 1949년 2월 11일자. 경향신문은 반민특위가 압수한 박중양이 가쓰라한테 보낸 서한을 보도하고 있다.

39) 박은경(1999), p. 106.

두 번째로 식민지시기 조선인 도지사의 평균 재임기간이 4년이었는데 비해 재임 중에 사망한 이두황을 예외로 평균 재임기간의 두 배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진호와 박중양은 귀족원의원에까지 임명되었다.

그렇다면 박중양은 충남도장관 시절 어떤 일을 했을까. 데라우치 총독은 1910년 10월 각 도 장관을 소집하여 통치 전반에 관해 훈시했다. 그 가운데 농업분야에서는 미작, 면작, 양잠, 수리관계, 과수, 축산 등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sup>40)</sup> 박중양은 충남도장관 시절 데라우치 총독의 시정방침을 충실히 이행해 도작 개량, 농기구 개선, 제언의 수축, 특용 농산물의 보급, 농가부업의 장려, 수산업의 개선, 식림, 산림보호, 공산물의 개량 등 산업진흥에 힘썼다.<sup>41)</sup> 본 논문에서는 박중양이 추진한 산업진흥정책 가운데 1910년대 헌병경찰의 비밀시찰기인 『주막담총』에도 등장하는 도작 개량, 뽕나무 보급, 도로 개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박중양은 1911년 봄부터 稻種 개량을 위해 일본 품종인 神力을 농민에게 무료로 공급하다가 점차 종자를 교환하여 확대 보급시켰다. 박중양은 신력이 재래종보다 미질이 좋아 농민들이 벼농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자각하여 자진하여 재배를 늘렸다고 했다.<sup>42)</sup> 실제로 박중양 재임기간 일본품종의 보급률은 1912년 6.5%에서 1915년 43.7%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 증가 속도는 같은 기간 경남(0.3%~45%), 전북(8.2%~50.2%)에 이어 세 번째로 빨랐다.<sup>43)</sup> 하지만 농민들은 “올해는 농가에서 주로 神力을 경작했으나 이삭도 잘 나오지 않고 힘만 들 뿐 쌀은 얻지 못하고 이

40) 「總督府ノ開始ニ付各道長官ニ対スル訓示」, 水野直樹 編, 『朝鮮總督諭告・訓示集成1』, 緞陰書房, 2001, pp.26~29.

41) 『매일신보』 1914년 4월 18일자.

42) 『매일신보』 1911년 12월 14일자, 1914년 4월 18일자.

43) 加藤木保次, 『朝鮮ニ於ケル稻ノ優良品種分佈普及ノ狀況』, 1924, pp.33~39; 정연태, 『식민권력과 한국농업』,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p.446에서 재인용.

벼로 경작한 이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이것을 모두 계산한다면 조선 전체에 몇 만 엔이나 될 것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sup>44)</sup>

다음으로 데라우치 총독이 강조한 양잠 장려를 충실히 실행했다. 데라우치는 1910년 10월 도장관 훈사에서 잡업이 조선 풍토에 적합하고, 빈부상하를 통해서 가장 간이하고 적절한 부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뽕나무 묘목, 누에씨, 잠구(蠶具)를 무상으로 배포할 것을 지시했다.<sup>45)</sup> 조선총독부는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양잠장려를 폭력적으로 수행했다. 지방행정조직을 통해서 재래의 양잠 품종과 양잠법을 금지하고 대신에 일본품종과 일본식 양잠법을 강제했으며 일상적인 감시를 통해서 집약적 농법을 강요했다.<sup>46)</sup> 이진호 경북도장관은 대량의 뽕나무 묘목의 재배와 상당량의 양잠을 강제했다.<sup>47)</sup> 1戶에 대해서 1반보(反歩)를 재배하는 묘목 6백 그루를 배부해 1910년도는 99만 6천 그루로 하고 이후 매년 64만 7천6백 그루를 배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sup>48)</sup> 박중양 역시 조선총독부의 양잠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초기에는 공주군 이외에 36군에 공동잡업전습소(소장은 군수)를 설치하고 선발시험을 통해서 전습생을 모집하여 실습시켰다. 1914년부터 각도에 출선해서 대대적으로 植桑計畫을 세워 도내 농가의 반수 약 9만 호에 대해서 매호당 50 그루씩의 뽕나무 묘목을 재배시키고<sup>49)</sup> 양잠장려를 주창하여 ‘뽕나무 장관’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sup>50)</sup> 박중양은 매년 도내 순

44) 송충기편, 『1910년대 일제의 비밀사찰기『酒幕談叢』,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2017, p.375.

45) 앞의 『朝鮮總督諭告·訓示集成1』, p.27.

46) 佐々木隆爾, 「朝鮮における日本帝國主義の養蠶業政策—第1次大戦期を中心に—」, 『人文學報』 第114號, 1976, pp.129~130; 이영학,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농업 정책」, 『한국학연구』 36집, 2016, p.570.

47) 佐々木隆爾(1976), p.111.

48) 農商務省農務局, 『朝鮮支那蠶糸業概觀』, 農商務省農務局, 1913, pp.85~86.

49) 「忠南蠶業振興大會」, 『京城日報』 1930년 10월 19자.

50) 『매일신보』 1921년 10월 17일자.



시 때 군수에게 양잠을 장려해서 뽕나무 묘목을 반드시 공동구매하여 심으라고 독촉했지만, 농민들은 토양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자라지 않은 곳도 있어 묘목 대금을 헛되게 들인다고 비난했다.<sup>51)</sup> 총독부 관료에 따르면 뽕나무 묘목을 군, 면에 할당하여 배부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면사무소에 버려둔 채로 방치되었지만 대금은 세금처럼 징수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원성을 샀다고 한다.<sup>52)</sup>

마지막으로 데라우치 총독은 도로 개선을 강조했는데, 이에 따라 박중양은 핫토리 고메지로(服部米次郎) 충남 경무부장과 함께 도로 부설에 힘썼다. 핫토리는 도로부지의 무상기부와 부역을 통해서 충남의 도로 건설과 보수를 급속도로 추진했다.<sup>53)</sup> 도로 부지로 논밭을 빼앗긴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했고, 민중들을 “조선은 예전부터 도로수선에 관해서 부역을 시키는 관례가 있던 했지만 이번처럼 끊임없이 부역을 명하는 일은 없었다. 일본인은 말로는 조선인을 지도 계발한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조선인을 전부 죽이려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농사일로 바쁜 가을임을 고려하지 않고 매일 부려먹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부역을 모르는 일본인 관리에게 부역을 알려준 조선인 관리를 비난했다.<sup>54)</sup>

이처럼 박중양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도종개량, 뽕나무 장려, 도로확장을 위한 강제적 토지수용과 부역은 민중들의 원성을 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무단적인 농정과 부역은 3.1운동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박중양은 왜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일까. 박중양은 3.1운동 직후 데라우치에게 보낸 서한에서 “식림, 하천정리, 관개수리사업, 곡류의 개량, 농민 부식물의 보급, 도로개선 및 보호, 교육,

51) 송충기(2017), pp.399~401.

52) (연도불명) 11월 12일자 君島一郎 앞 上瀧基 서한(「君島一郎關係文書」 67-7. 동경 대학법학부 소장).

53) 服部米次郎, 『九十年の回顧』, 비매품, 1963, pp.82~84.

54) 송충기(2017), pp.280~281.

위생, 국세, 지방세 등의 재원 정리와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은 “조선의 민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강압적으로 장려,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5)</sup> 박중양은 조선인의 악폐로 편협성, 배타성, 험담, 나태, 의존 생활, 놀고먹기를 들었는데<sup>56)</sup> ‘민도’가 낮은 조선에서는 확실하고 장래성 있는 사업이라면 강압적으로라도 장려 실행해야 한다고 총독부의 산업정책을 지지했던 것이다.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무단통치 시대 ‘개발독재’의 전형적인 도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15년 3월 조선총독부 관제개정에 따라 내무부 지방국이 폐지되자 테라우치 총독은 지방국장 오바라 신조(小原新三)를 도장관으로 이동시키려 했다. 조선인 도장관 가운데 한 사람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총독부로서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바라가 테라우치 총독에게 전임 도장관인 박중양이 위생, 음식, 시장정리, 시가정리 등에 관한 일을 경찰 관헌에게 일임하고 도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척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서는 총독부 수뇌부의 평가는 높지 않았다.<sup>57)</sup> 결국 테라우치는 사생활로 물의를 일으킨 박중양을 의원면직시키고 한직인 중추원 찬의(수당 1,200원 이내)에 임명했다.<sup>58)</sup> 이로써 기존에 6명 있었던 조선인 도장관은 5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통감부시절부터 관료로 승승장구하던 박중양으로서는 처음으로 맛본 좌절이었을 것이다.

55) 1919년 5월 10일자 寺內正毅 앞 박중양 서한(「寺內正毅係文書」 381-5 국회도서관헌정자료실 소장).

56) 박중양(발행년불명), p.228.

57) 1915년 5월 3일자 寺內正毅 앞 小原新三 서한(위의 「寺內正毅係文書」 236-2).

58) 박중양이 사임한 것은 능력보다는 사생활이 문제되었던 것 같다. 박중양은 순시하다가 여관의 일본인 여주인과 간통하다가 주인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평판이 나빠졌다고 한다(ヒラヤマ山人, 「官制改正の結果異動せる重なる役人」, 『朝鮮及滿州』 第94號, 1915, p.64).

## 2. 3.1운동과 박중양

박중양은 도장관을 의원면직당한 후에 대구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재기를 노렸다. 1918년 5월 대구상업회의소 특별평의원에 취임했고 같은 해 8월에는 대구와 안동 간의 철도 부설을 추진하는 邱安間輕鐵期成會의 회장에 추대되었다.<sup>59)</sup> 재기의 기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박중양은 만세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독립만세운동은 조선 지배체제를 근간에서부터 뒤흔들고 있었다. 세키야 데이자부로(關屋貞三郎) 학무국장은 제국의회 출석을 위해 동경에 체재하고 있던 오쓰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郎) 중추원 서기관장에게 3.1운동 직후의 상황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조선인 屬官 특히 순사보, 헌병보조원 등의 움직임이 거의 없고 경성 내에서는 모두 마비되어 검거 효과가 오르지 않습니다. 일반 조선인 판임관도 전전공공하여 제복을 입지 않은 자가 매우 많습니다. 만약 지방 관리 등의 동맹파업과 같은 행동이 일어난다면 거의 수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선)귀족들은 협박을 걱정하거나 만일 독립이 될 경우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보이는 추태가 눈꼴사납습니다. 중추원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자는 두세 사람에게 지나지 않습니다. 평소 조선인과 교제가 없는 총독부 당국은 지금 조선인 폭도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제압하는 방도가 없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sup>60)</sup>

3.1운동이 일어나자 총독부와 지방의 관료뿐만 아니라 조선귀족, 중

59) 『매일신보』 1918년 8월 28일자.

60) 1919년 4월 2일자 大塚常三郎 앞 關屋貞三郎 서한(「大塚常三郎關係文書」 67-7, 국회도서관헌정자료실 소장).

추원 등의 조선인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었고, 조선인들과 교류가 적었던 총독부 당국은 그 대책마련에 고심하면서 조선인들이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기를 절치부심하고 있던 박중양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자제단을 결성하여 조선총독부 당국의 3.1운동 대응에 부합했다.<sup>61)</sup> 박중양은 4월 6일 대구에서 “소요 사태를 진압하고 불명한 무리를 배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제단을 결성해 단장에 취임하고 독립만세운동을 반대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박중양은 데라우치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방관청에서는 경찰 관헌의 힘만으로는 의존할 수 없고 별도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신속히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장관이 관내를 순회해서 宣諭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조선인 장관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13도 어떤 곳도 평온한 지방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장관이 출마하여 직접 曉諭를 尽瘁한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중략) 지방장관이 관내에서 발생한 일을 일률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안거하고 허송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지방장관의 분발을 촉구했다.<sup>62)</sup> 박중양의 서한은 복지부동하고 있는 스즈키 다카시(鈴木隆) 경북도장관을 질책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박중양은 4월 15일 대구를 출발하여 김천, 개령, 선산, 칠곡 각 군을 순회하면서 曉諭하고 21일 도청에서 순회 상황을 보고했다. 순회에서 돌아온 박중양은 데라우치에게 경북 각 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이번 각 군 상황을 관찰하건대 군청 직원의 근무 태도는 半病人이 행 보하는 감이 있습니다. 어떤 군에서도 소요사건으로 헌병경찰은 침식을

61) 3.1운동 시기 자제단 활동에 대해서는 김도형(1993); 윤주한, 「3·1운동기 自制團의 등장과 활동」,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이양희, 「3·1운동기 일제의 한국인 자위단체 조직과 운용」, 『한국근현대사연구』 83호, 2017; 김일수, 「3·1운동 전후 독립에 대한 인식과 독립운동—대구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38호, 2018를 참조할 것.

62) 1919년 4월 11일자 寺內正毅 앞 박중양 서한 (앞의 「寺內正毅係文書」 381-3).

있고 각각 직책을 다하고 있는 것은 딱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번 소요사건에 대해서 경무 관현의 일과 郡庠吏員의 활동은 원래 동일하게 바라거나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군청직원은 너무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민에게 간절히 曉諭를 하거나 관내를 동분서주해서 양민의 오해를 풀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鎮靜에 힘쓰는 郡吏員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불량자는 청소해야 하고 오해는 풀어 양민을 위무할 필요가 있고 장관이 출마하여 직책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간절히 체감했습니다.<sup>63)</sup>

군청직원들이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도장관이 직접 나서서 도민에게 曉諭하여 만세운동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테라우치에게 전했다. 이후 박중양은 대구에서 정열적으로 자제단 조직의 취지를 설명하고 가맹을 권유하여 4월 20일까지 3,787호의 가맹을 받아들였다.<sup>64)</sup>

박중양이 대구에서 시작한 자제단 운동은 전북에서는 이진호가 조직한 자성회 운동으로 이어지고<sup>65)</sup> 8월까지 전국의 138군이 넘는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자제단 활동이 만세운동의 진압과 회유에 확실한 효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sup>66)</sup> 전술한 바와 같이 박중양은 경북관찰사 시절 의병이 활동하는 지역에 들어가 인민을 宣諭하는 활동을 전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경험이 자제단 조직으로 이어졌고, 이후 관직 복귀의 발판이 되었다.

63) 1919년 4월 22일자 寺內正毅 앞 박중양 서한(앞의 「寺內正毅係文書」 381-4).

64) 『매일신보』 1919년 4월 30일자.

65) 1919년 4월 23일자 寺內正毅 앞 이진호 활동(앞의 「寺內正毅係文書」 389-1).

66) 이양희(2017), p.173.

## IV. 문화통치시대

### 1. 황해도지사 시절

박중양은 1919년 9월 30일에 3.1운동의 진압, 해산에 참여한 공로로 일본정부로부터 훈3등 서보장을 받았다.<sup>67)</sup> 3.1운동 이후 조선총독, 정부 총감을 비롯한 총독부 수뇌부가 전면 교체되자 박중양은 새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에게 접근한다. 박중양은 1920년 10월 30일 사이토 총독에게 보낸 서한에서 신정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내외에 신뢰를 보여줄 것, 지방의 치안은 당분간 경무책임자에게 맡기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지방관들이 식산, 토목, 교육 그 외 일반 행정에 각각 활동하도록 엄명할 것, 조선인은 조선 개발을 도모하고 인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책에는 열복한다는 것, 일부 ‘불령도배’의 ‘망동’은 제국 국력 하에서는 중대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지방관현은 자애와 위엄으로 대할 것 등을 설파했다.<sup>68)</sup>

박중양은 중추원내지시찰단의 일원으로 1920년 11월 동경을 방문하여 하라 다카시(原敬) 수상을 접견한다. 하라는 일기에 “조선 중추원 찬의 10여 명 남짓 동경에 와 있어 오찬에 초대했다. 박모는 장장 연설했다. 관료의 절반은 조선인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동인은 지방장관에서 중추원의 한직에 이동한 자로 그 불평도 있겠지만 조선에서는 이런 종류의 논쟁을 하는 것이 유행으로 보인다<sup>69)</sup>”라고 박중양에 대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1915년 4월부터 1921년 2월까지 약 6년간 한직인 중추원에서 권토중

67) 『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10월 6일자.

68) 1920년 10월 30일자 사이토 마코토 앞 박중양 서한(앞의 「齋藤實關係文書」 1850-1).

69) 原奎一郎 編, 『原敬日記』, 福村出版, 1981, p.313, 1920년 11월 16일자.

래했던 박중양은 1921년 2월 3.1운동 시기 자제단 활동으로 하라 수상과 사이토 총독에게 그 능력과 제국일본에 대한 충성을 인정받아 황해도지사로 발탁되어 다시 지방장관에 복귀했다.

1921년 3월 15일 군수회의를 소집해서 각 군 상황을 청취했고 20일부터 재령, 안악, 봉산, 황주, 검이포, 부진, 장연, 송목, 은율 등 각 군을 시찰하면서 강연회를 개최하여 고래의 전제정치를 비판하고 新政이 입헌적임을 설파했다.<sup>70)</sup> 지방 순시에서 돌아온 박중양은 오가와 히라키치(小川平吉) 국세원 총재에게 “다소 시국을 표방하는 불령의 무리가 있긴 하지만 사정을 모르는 자가 말하는 것처럼 대수롭지는 않습니다. 치안 상황이 좋은 것을 보면 한국정부시대와 비교해서 지금은 요순시대라고 할 만합니다. 가까운 시일 안으로 불령 사상을 청소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고 도지사로서의 결의를 밝혔다.<sup>71)</sup> 박중양은 유학생과 신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했다. ‘신지식인’들의 독립사상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고 경찰에 의한 강경방침으로도 절멸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세계의 대세, 일본·조선의 관계, 이해득실을 잘 이해시켜 조선독립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각시켜 산업, 교육, 토목에 힘쓴다면 통치가 안정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지식인들과 접촉해서 산업, 교육 분야 등 실력양성운동으로 유도하여 체재 안으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것은 경찰관료를 비롯한 조선총독부의 통치방침이기도 하였다.<sup>72)</sup> 박중양은 총독부 지침을 충실하게 따랐던 것이다. 이후 박중양은 시국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통치를 선전하고 산업정책에 전력을 다하게 된다.<sup>73)</sup> 황해도에서도 충남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진흥의 일환으

70) 『매일신보』 1921년 4월 21일자.

71) 1921년 4월 18일자 小川平吉 앞 박중양 서한(小川平吉文書研究会 編 『小川平吉關係文書』, みずさ書房, 1973, p.497).

72) 이에 대해서는, 松田利彦,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 一九〇五~一九四五年』, 校倉書房, 2009를 참조할 것.

로 양잠장려에 착수했다. 매년 농가 1호에 평균 90주의 뽕을 재배하도록 도내에 1922년 소요분 약 500만 주의 뽕나무를 배부할 안을 수립했다.<sup>74)</sup> 박중양은 직접 관료들을 이끌고 농지에 가서 농민들을 독려하여 강제적으로 뽕나무 묘목을 심었다고 한다.<sup>75)</sup>

## 2. 충북도지사 시절

박중양은 1923년 2월 충북도지사로 전임했다. 당시 충북 내무부 지방과에 근무하고 있던 야마구치 모리(山口盛)에 의하면 충북은 13도 가운데 道費 규모가 가장 빈약한 지역이었으므로 사실상 좌천인사였다고 한다.<sup>76)</sup> 부임 후 얼마 안 있어 박중양은 사이토 총독에게 강원도가 관할하고 있는 일부 지역(영월, 평창, 정선 등)이 교통, 경제관계에서 충북에 가까우니 이들 지역의 관할권을 충북에 이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sup>77)</sup> 1923년 8월에는 지방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동경으로 건너갔다. 일본 정부가 재정긴축주의를 내걸자 적극적으로 조선에 자본을 투자해 철저히 조선을 개척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10개 사단의 조선 주둔, 2000천만 내외 일본인의 조선 이주를 주장했다.<sup>78)</sup> 조선 주둔 사단의 증설과 일본인의 이주 장려를 요구한 재조일본인의 이해를 대변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박중양은 충북도지사 시절 그의 ‘독단적인’ 성향으로 인해 오시

73) 1921년 10월 6일자 小川平吉 앞 박중양 서한(小川平吉文書研究会 編(1973), p.498).

74) 『매일신보』 1921년 10월 17일자.

75) (년도불명) 11월 12일자 君島一郎 앞 上瀧基 서한(「君島一郎關係文書」 동경대학 법학부 소장).

76) 山口盛, 『わが七十七年の歩み』, 自家版, 1971, p.88.

77) 1923년 5월 7일자 사이토 마코토 앞 박중양 서한(앞의 「齋藤實關係文書」 1850-7).

박중양은 1924년 4월달에도 寧越·平昌·旌善·原州·江陵·蔚珍·三陟의 7郡을 충북에 합병해달라고 사이토 총독에게 청원했다.

78) 朴重陽, 「東京往復」, 『朝鮮公論』 第12券第11號, 1924, p.18.



마 하치쿠로(大島破竹郎) 내무부장을 비롯한 일본인관료들과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박중양은 민립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이상만 높고 자기의 실력을 모르는 도배'라고 비판하면서 양잠을 장려할 것을 주장했다.<sup>79)</sup> 박중양은 나가노현(長野縣) 양잠지대를 모델로 1925년 도부터 양잠을 하고 있는 조선인 14만 호, 일본인 만 호 이외에 새롭게 10만 호에 1호당 뽕나무 50그루씩을 심게 하여 완성시키는 계획을 세웠다.<sup>80)</sup> 박중양은 '획일적이다'라는 비판에도 당시의 민도에서는 "관의 일방적인 지도에 따르는 것이 좋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한번 마음먹은 것은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도쿠시마현(徳島縣)에서 전임해 온 오시마 내무부장은 민도나 지방의 실정을 감안하여 민의를 수용하여 획일적인 행정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양자의 갈등과 대립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sup>81)</sup> 특히 부산일보의 사회교화용 영화필름 구입문제, 道 예산 수정문제, 미간지 및 산림의 대부분 불하문제 등으로 지사와 내무부가 전면 대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충북 내무부의 일본인 과장들이 연명으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대표를 선출하여 오쓰카 내무국장을 면담하여 박중양의 행동을 설명하고 그 진출을 요청했다.<sup>82)</sup> 충북 내무부 관료들이 제출한 진정서가 「齋藤實關係文書」에 포함되어 있는 「충북지사 박중양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된다.<sup>83)</sup> 이 진정서는 박중양의 특징을 세 가지 들어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일본인 관료들의 조선인에 대한 편견이 포함되어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상관에 대한 선물공세를 통한 교연영색, 부하에 대한 위압,

79) 朴重陽, 「朝鮮現下の諸問題と産業第一主義に就て」, 『朝鮮公論』 第13卷第1號, 1925, p.25.

80) 朴重陽, 「忠清北道の蠶業に就て」, 『朝鮮及滿洲』 第209號, 1925, p.55.

81) 山口盛(1971), pp.88-89.

82) 山口盛(1971), p.88·112.

83) 「忠北道知事朴重陽に対する批判」(앞의 「齋藤實關係文書」 서류의 부, 110-37).

선물 수수와 금품의 하명 등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의견서는 박중양이 근무처마다 재앙을 초래하여 그 결과 총독을 원망하게 될 것이니 국가를 위해 인도를 위해 박중양을 官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결국 양자의 대립은 1924년 3월 오시마 내무부장의 충남 전출과 학무과장의 휴직, 지방과장의 퇴관으로 일단락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박중양이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총독부는 박중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오쓰카 내무국장은 충남 재무부장으로 부임하는 후루쇼 이쓰오(古庄逸夫)에게 “박중양이라는 녀석은 無縫天衣라고 할까 天衣無縫이라고 할까 방심할 수 없는 사람이니 너는 똑바로 해라”라고 전했고 후루쇼는 “나는 이번에 내무국장의 명령을 받고 박중양을 감독하기 위해 간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sup>84)</sup> 도지사라 하더라도 조선인은 일본인관료의 감시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과거 데라우치 총독이 “도장관이 조선인인 도에서는 각 사무관 專斷으로 결재하는 자가 있는 것 같다. 주의를 요한다<sup>85)</sup>”가 우려하고 있듯이 도 행정을 일본인 관료에게 일임하여 지위를 보존한 조선인 지사도 있었다. 이규완 함남지사는 “도행정은 內務 財務, 경찰의 三部長에게 맡겨버리고 저는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비료통을 메고 菜麻밭 질머매기를 일삼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sup>86)</sup> 무학이었던 이규완은 행정을 일본인 관료에게 맡겨 버리고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적어 조선인 도지사 가운데 가장 오래 지위를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총독부의 비호로 도지사 지위를 보전했지만 박중양은 얼마 안 있어 1924년 가을에 발생했던 속리산 범주사 성추문사건으로 휴직 처분을 받

84) 藤本修三·君島一郎·柳澤七郎他, 「朴重陽について」, 『東洋文化研究』 第4號, 2002, p.322.

85) 山本四郎 編, 『寺内正毅日記』, 京都女子大学, 1980, p.684.

86) 北岳山人, 「十三道知事 人物評, 忠北知事 金東勳君」, 『삼천리』 9권 1호, 1937, p.126.

아 사실상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후루쇼는 1925년 초 오쓰카 내무국장에게 박중양이 출장을 가면 “여성에 손을 대는 나쁜 버릇이 있다”고 보고했다. 법주사 비구니로부터 투서를 받은 오쓰카는 정무총감과 상담해서 가토 간칸쿠(加藤灌覺, 종교과의 촉탁, 조선어에 정통)를 극비리에 법주사로 파견하여 실지조사를 시켰다. 오쓰카는 후루쇼에게 소문에 대한 투서를 작성하게 하여 언론에 흘렸다.<sup>87)</sup> 『朝鮮新聞』을 비롯한 신문들이 박중양의 속리산 비구니에 대한 성추문을 보도하기 시작하자 오쓰카 내무국장은 “속리산 운운의 신문기사가 공표된 이상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중양은 사이토 총독에게 5월까지 휴직을 늦추고 휴직한 후에는 중추원 참의에 임명해 주기를 요청했다.<sup>88)</sup> 박중양은 1925년 3월 31일부로 충북도지사를 휴직하였다. 그 후임으로 부임한 김윤정은 미국 유학파로 일본어를 잘 못해 공문을 해독할 수 없어 행정 사무에 지장이 많았다고 한다. 도지사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듬해 8월에 물러났다.<sup>89)</sup>

박중양이 면직이 아니라 휴직을 한 것은 은급(恩給)을 받을 수 있는 재직 15년을 채워 주려는 총독부의 배려로 보인다. 하지만 박중양이 간절히 희망했던 중추원 참의 임명은 법제국이 휴직중인 자를 중추원 참의로 임명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해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sup>90)</sup> 이후 박중양은 사이토 총독, 사이토의 최측근인 모리야 에이후(守屋榮夫) 전 총독비서관에게 많은 서한을 보내 중추원 참의 임명, 매일신보 지방지국의 인수, 토지개량회사에의 참여, 어업권 허가, 함남지사 복직 등 인사와 이권

87) 古庄逸夫, 『朝鮮統治回想錄』, 자가출판, 1962, p.16.

88) 1925년 3월 5일자 사이토 마코토 앞 박중양 서한(앞의 「齋藤實關係文書」 1850-12).

89) 古庄逸夫(1962), p.17.

90) 박중양은 휴직이 중추원 참의 임명에 장애가 되자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수상에게 직접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1925년 11월 9일자 사이토 마코토 앞 박중양 서한(앞의 「齋藤實關係文書」 1850-13).

을 청탁했다. 집요한 로비 끝에 박중양은 1927년 2월에 칙임관 대우의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박중양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이토 총독에게 “통감부 설치 이후 저의 세치 혀는 군대, 경찰보다 위력을 발휘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왕의 공로, 관등, 경력에서 볼 때 중추원 고문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족원 혹은 추밀원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sup>91)</sup>”라고 높은 직책을 요구했다. 박중양의 인사 청탁은 노골적이고도 집요했다.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国昭) 총독은 “조금도 사양이라는 것을 모르는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평할 정도였다.<sup>92)</sup> 박중양은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만년총독’, ‘無爲총독’이라고 간접적으로 사이토 총독을 비난하기도 했다.<sup>93)</sup>

### 3. 야마나시 총독 시기

1927년 12월에 다나카 내각이 사이토 총독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를 임명하자 박중양의 인사 청탁, 인사 로비는 한층 노골화되었다. 정당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정당내각시기(1924년-1932년)가 도래하자 인사 청탁은 총독부를 넘어서서 내각, 정당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박중양은 모리야 중의원의원, 오가와 철도대신 등에게 자신을 내무국장, 학무국장, 칙임 참여관, 정무총감 등에 추천해줄기를 의뢰하는 서한을 다수 보냈다. 아울러 조선통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선의 실정을 잘 아는 조선인 정무총감을 둘 것과 귀족원 의원으로 선출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sup>94)</sup> 아울러 집권당인 정우회 간부들에게도 조

91) 1927년 1월 27일자 사이토 마코토 앞 박중양 서한(앞의 『齋藤實關係文書』 1850-24).

92) 小磯国昭, 『葛山鴻爪』, 小磯国昭自叙伝刊行会, 1963, p.645.

93) 1926년 9월 2일자 守屋榮夫 앞 박중양 서한(『守屋榮夫關係文書』 85-3-7-15, 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

94) 朴重陽, 『東都往還記(二)』, 『朝鮮公論』 第16卷第8號, 1928, p.49.

선인 정무총감을 임명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박중양이 정우회 출신 오구치 기로쿠(大口喜六) 대장성 정무차관에게도 총독이 어쩔 수 없다면 조선에 정무총감 두 명을 두고 그 중 한사람은 조선인(박중양)을 임명하라는 편지를 보내자 오구치가 조선을 방문했을 때 박중양의 인물평을 조사했다고 한다.<sup>95)</sup>

박중양의 인사 청탁은 총독부참여관문제가 부상하자 더욱 거세졌다. 조선인 최초의 학무국장인 이진호가 1929년 1월 퇴임하자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인심을 고려해 본부에 총독, 정무총감의 자문에 응해서 사무에 복무하는 총독부참여관안을 입안했다<sup>96)</sup>. 총독부참여관안은 추밀원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게 되는데, 1929년 사이토 총독이 재임하자, 과거 도지사 지냈던 조선인들은 총독부참여관에 취임하려고 맹렬하게 운동하기 시작했다.<sup>97)</sup> 박중양 역시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계에 전방위로비를 했다.

한편 박중양은 1929년 4월 야마나시 총독에게 지방관 인사, 초등교육, 소작문제, 부역폐지, 기부금 폐지, 소액용자, 한해피재민구제 등 제반 정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sup>98)</sup> 박중양의 조선 통치관을 살필 수 있는 사료이므로 조금 길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관의 인사이동이 '공명정대'하지 않고 성실함을 결여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이쿠다 기요사부로(生田清三郎) 내무국장과 나카무라 도라노스케(中村寅之助) 총무과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다음으로 이진호 학무국장이 정력적으로 추진한 1면1교정책에 대해서는 기아에 허덕이는 농촌 현실에서 보통교육보다도 먼저 생활의 안정을 기할 것을 제언했다.

95) 藤本修三·君島一郎·柳澤七郎他(2002), p.314.

96) 조선총독부참여관에 대해서는 岡本眞希子, 「總督政治と政黨政治—二大政黨期の總督人事と總督府官制・子算」,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38集, 2000를 참조할 것.

97) 『중외일보』 1929년 9월 10일자.

98) 1929년 4월 山梨半造 앞 박중양 서한. 이 편지의 복사본이 1929년 4월 12일자 守屋榮夫 앞 박중양 서한(「守屋榮夫關係文書」 85-4-2-17 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에 포함되어 있다.

초등교육문제는 재원만 있으면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소작문제는 현재 그다지 심각하지 않으므로 지방관에게 일임해야 하고 소작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부역은 재원이 있으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성급히 폐지를 성명하게 된다면 도로는 황폐해지고 토목공사는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무총감 통첩으로 추진한 기부금 금지도 공문으로 명령할 필요가 없고 지방장관에 일임하면 되고, 부족한 지방재원으로 인해 지방 유력자의 협력으로 지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부금을 폐지한다면 관료들은 무의도식하면서 급료만 축낼 것이라고 폐지를 반대했다. 소농민에 대한 소액용자는 취지는 좋지만 농민이 빈궁할 때 현금 용자를 하게 되면 무아몽중(無我夢中) 소비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해피제민구제에 대해서는 구제가 철저히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관개수리사업의 확충과 같은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체적으로 야마나시 총독의 대표 정책인 1면1교정책, 소작조사위원회 설치, 부역폐지, 소농민에 대한 소액용자 정책을 비판하거나 실행 결과에 회의적이었다. 박중양은 야마나시 총독을 “전혀 시시한 총독으로 3년 동안 조선통치가 혼돈되고 관기가 매우 이완되었다<sup>99)</sup>”고 혹평했다. 반면에 야마나시 총독은 박중양을 “일본어는 잘 하지만 인물이 천하다(下品)<sup>100)</sup>”라고 평가했다.

## V. 맺으며

본고에서는 박중양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그의 친일관료로서의 의식

99) 1929년 8월 19일자 守屋榮夫 앞 박중양 서한(앞의 「守屋榮夫關係文書」 85-4-1-11).

100) 「倉富勇三郎日記」 1929년 5월 25일자(「倉富勇三郎關係文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과 행동을 밝혔다. 아전 출신의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난 박중양은 청일 전쟁 후 일본인과 교류하면서 일본어를 익히기 시작했다. 일본인의 권유와 정치 방면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일본유학을 떠났다. 1910년대 조선인 도지사들이 정치적 탄압을 피해 일본에 망명했던 것과 달리 박중양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유학했던 것이다. 일본유학은 신분제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구였다. 아오야마중학교를 졸업하고 1900년부터 경찰제도연구생 자격으로 경찰제도와 감옥제도를 연구, 실습했는데 이때 맺었던 내무성 인맥은 박중양의 출세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약 7년간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러일전쟁에 제1군의 통역관으로 종군하여 일본정부로부터 서보장을 수여받았다. 박중양은 일본유학, 러일전쟁 종군을 통해서 일본의 신뢰를 획득해 관료로서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1904년 귀국하여 농상공부 주사, 군부 기수, 경위국 경무관을 거쳐 1906년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대구 군수로 발탁되었다. 1907년에 34세의 나이로 평남관찰사로 승진하여 경북경찰사로 이동하여 3년 3개월 동안 관찰사로 재직했다. 대한제국시절 박중양은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革舊改新을 구호로 일본의 제도와 시설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재한일본인의 이해를 대변하고 의병탄압에 협력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했다. 3.1운동 때에는 경북관찰사 시절의 의병 선유 활동 경험을 살려 대구에서 자제단을 조직하여 만세운동을 진압하는 데 앞장섰다. 일본에 대한 철저한 충성심으로 관료로서 고속 승진할 수 있었고 여성문제로 두 차례 낙마한 후에도 다시 관계에 복귀할 수 있었다.

한편 박중양은 조선인의 악폐로 편협성, 배타성, 험담, 나태, 의존 생활, 놀고먹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조선인에 대한 과도한 우민관은 강압적이고 전제적인 지방행정으로 나타났다. 박중양은 한국병합 이후 총독부의 시정방침과 산업정책에 따라 도작 개량, 뽕나무 보급, 도로 개수 등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사업들을 강제적으로 시행해 조선인의 많은 반발을

샀지만 ‘민도’가 낮은 조선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정당화했다. 반면에 장기간 일본에 망명했지만 일본의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 문서행정에 서툴렀던 다른 조선인 도장관들과는 대조적으로 박중양은 일본어 실력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했다. 이 때문에 일본인관료와 많은 갈등과 대립을 빚었다.

이처럼 박중양은 일본에 대한 충성심은 강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일본인관료들과 충돌이 많아서 조선총독부로서는 쓰기는 힘드나 버릴 수는 없는 ‘제국의 계륵’이었던 것이다. **日本空聞**

논문 투고일 : 2019년 10월 28일

논문 심사일 : 2019년 12월 5일

게재 확정일 : 2019년 12월 9일



## 참고문헌

### 1. 논문

- 김도형, 「한말 경북지역의 近代教育과 儒教」, 『계명사학』 10호, 1999.
- 김원도, 『일제강점기 조선인 도지사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김윤희, 「러일전쟁기 일본군 협력 한인 연구－일본정부의 훈포상자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35호, 2009.
- 김일수, 「한일병합 이전 대구의 일본인거류민단과 식민도시화」, 『한국학논집』 59호, 2015.
- 김일수, 「3·1운동 전후 독립에 대한 인식과 독립운동－대구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38호, 2018.
- 동선희, 『조선총독부 통치구조 하에서의 道 및 道知事の 기능과 역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년 학술연구용역보고서.
- 송지연, 「러일전쟁이후 일제의 軍用地 收用과 한국민의 저항: 서울(용산), 평양, 의주를 중심으로」, 『梨大史苑』 30호, 1997.
- 윤주한, 「3·1운동기 自制團의 등장과 활동」,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양희, 「3·1운동기 일제의 한국인 자위단체 조직과 운용」, 『한국근현대사연구』 83호, 2017.
- 이영학,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 『한국학연구』 36집, 2016.
- 이형식, 「조선의 전기왕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와 조선사회」, 『동양사학연구』 145, 2018.
- 한궁희,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도지사 임용정책과 양상」, 『역사문제연구』 13권 2호, 2009.
- 淺井良純, 「日帝侵略初期における朝鮮人官吏の形成について－大韓帝国官吏出身者を中心に」, 『朝鮮學報』 第155號, 1995.
- 稲葉継雄, 「李軫鎬研究-朝鮮總督府初の朝鮮人學務局長の軌跡」, 『國際教育文化研究』 第6號, 2006.
- 岡本眞希子, 「總督政治と政党政治－二大政党期の總督人事と總督府官制・予算」,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38集, 2000.
- 佐々木隆爾, 「朝鮮における日本帝國主義の養蠶業政策－第1次大戦期を中心に－」, 『人文学報』 第114號, 1976.

藤本修三·君島一郎·柳澤七郎他, 「朴重陽について」, 『東洋文化研究』 第4號, 2002.

## 2. 저서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70년사 상권』, 대구상공회의소, 1977.

박은경, 『일제하 조선인관료 연구』, 학민사, 1999.

박중양, 『述懷』, 자가출판, 발행년불명.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친일파99인 1』, 돌베개, 1993.

정연태, 『식민권력과 한국농업』,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조지훈, 「지조론—변절자를 위하여」, 『조지훈 전집 5』, 나남출판, 199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V-7』, 2009.

伊藤之雄, 『伊藤博文をめぐる日韓關係: 韓國統治の夢と挫折, 1905~1921』, ミネルヴァ書房, 2011.

古庄逸夫, 『朝鮮統治回想録』, 자가출판, 1962.

松田利彦,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 一九〇五~一九四五年』, 校倉書房, 2009.

森山茂徳, 『近代日韓關係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87.

山口盛, 『わが七十七年の歩み』, 自家版, 1971.

Abstract

Park Jung-Yang,  
a Pro-Japanese Government Official,  
and the Rule over Joseon

Hyoungh-Sik Lee

In this paper, the trail of Park Jung-yang's life was traced and his consciousness and acts as a pro-Japanese government official were examined. He gained Japan's trust by studying in Japan and joining the army in the Russo-Japanese War, which helped him to step on the fast track as a government official. After he was chosen as a governor of Daegu by Ito Hirobumi in 1906, he was served as a provincial governor for 3 years and 3 months. Working as a provincial government official in the days of Daehan Empire, he proved his loyalty to Japan by taking the initiative in introducing Japanese system and facilities with the slogan of reforming what's old into what's new(革舊改新),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Japanese in Korea and cooperating in suppressing the voluntary troops in resistance against Japan. During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he organized a refrain club in Daegu and led the oppression of the movement by making use of his experience of crackdown on the anti-Japan troops as a governor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With his steadfast loyalty to Japan, he could get quick promotions as a government official, and return to his governmental office after two failures in promotion because of a woman problem.

Key words

Park Jung-yang, Hyobsung school, refrain club, provincial governor,  
Yamanasi Hanzo